



2014 전국장애인체육대회

Incheon National Para Games

2014.11.04-11.08

인천광역시 일원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4

11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백팩’

골목 빨랫줄에 자루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수제품’ 배낭입니다.

변신 전에는 곡식이나 각종 재료를 담았던 포대입니다.

그 낡은 포대에 어깨끈을 달았습니다.

온리 원,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 백팩입니다.

— 동구 화수동에서

글 · 사진 유동현 분지편집장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6 2014 인천APG 화보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이모저모

16 늦가을 풍경 북성포구

22 시네마 인천 예술극장

28 영화 감상 동아리

32 스페셜 시정 10대 핵심과제

36 내 길 내 일 도성양복점 김진성 대표

38 문화 ‘사람, 마음, 풍경’ 展
음악창작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42 Culture Info 인천남구여성합창단 제20회 정기연주회 외

44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김장 위해 밤낮 나오는 수돗물 외

46 시정뉴스 화장품 ‘어울(Ouil)’을 기대해주세요 외

50 의정뉴스 ‘교복 구매! 반값 실현, 과연 가능한가?’ 토론회 외

52 이달의 서평 천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 외

53 사회적기업 탐방 ㈜다함께

54 생활정보 나의 IFEZ이야기 에세이 콘테스트 공모 외

57 독자가 꾸미는 하나되는 아시아 미얀마의 심장, 쉐다곤 파고다 외

58 모닝커피 한잔 이영태 인천개항장연구소 대표



표지이야기

가을의 끝자락에 와 있다. 자연의 색깔이 짙어간다. 가을을 줄길 마지막 시기다. 얼마 전 끝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로 다들 바쁜 가을을 보냈다. 이제 한숨을 돌리고, 푸른 하늘 따듯한 햇살의 여유로움으로 인천의 가을을 느껴보자.

이천십사년 십일월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51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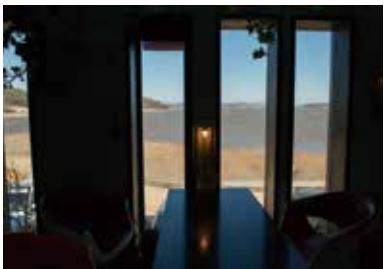
06



16



22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4년 11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청 편집인 우승봉(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 편집위원 정경숙 /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보섭 · 정정호 · 홍승훈 · 유창호(자유사진가)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 인쇄 웨스트코(주)

@120incheon

시민께서 인천시 종합민원센터인 미추홀콜센터의 트위터(@120incheon)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이 하시는 말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24번 버스 노선이 바뀐다고 하는데, 조달청에도 가나요?

인천 버스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24번 버스는 노선 변경 전과 마찬가지로 변경 후에도 조달청비축기지 정류장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버스에서 하차할 때 왜 '띠띠띠' 부저음이 울리나요? 빨리 내리라는 압박에 서두르게 되어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시 버스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버스 하차 시 부저음이 울리는 것은 안전상의 이유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버스 번호를 확인해 주시면, 불편 사항을 운수회사에 전달하여 버스 기사의 업무 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부평공물축제 때문에 약속시간에 한 시간이 넘게 늦었습니다. 같이 기다리시던 분들도 분통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행사도 아닌 데 신경 좀 써 주세요.

불편하신 사항은 부평구공물축제 관련 종합운영본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아무쪼록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인천 통통(通通)

인천은 '통통'합니다.
시민과 통하고 세상과 통합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인천시 미디어와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방송 '민트TV'(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 블로그 '잉크'(incheonblog.kr)
인천시미디어 블로그 '인천N조이'(blog.naver.com/happyyou)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소셜웹 (social.incheon.go.kr)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블로그 (incheonblog.kr)

me2day
twitter blog
facebook social network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이웃을 환영합니다

독자 김한민(25, 송도동)



김한민님은 가족과 함께 최근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올해 초 대학을 졸업하고 집 옆에 직장도 얻었습니다. 송도 스마트밸리로 열심히 출근하고 있는 김한민님, 인천은 앞으로 김한민님에게 제 2의 고향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이웃, 김한민님을 환영합니다!

내게 있어 인천은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도시다. 서울과는 다른 느낌이 있다. 송도국제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곳과 구도심의 느낌이 정말 다르다. 미래적인 분위기와 복고적인 분위기가 섞여 신비하게 다가온다. 아직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살수록 인천의 매력에 빠져들 듯하다.

'굿모닝인천'과의 인연 지하철에서 첫 만남, 동사무소에서 두 번째 만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의 세 번째 만남. 모두 우연히 마주쳤는데, 세 번의 우연은 인연이라고 그렇게 펼쳐 들었다. '굿모닝 인천'을 통해 아직은 낯선 이곳의 소식과 생활을 만난다. 일종의 가이드북인 셈이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인천에 하고 싶은 말 이사를 오면서 아예 주민등록증도 바꿨다. 이제 완벽한 인천시민이다. 계속 서울에서만 살 줄 알았는데 인천이 제 2의 고향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좋은 일들만 좋은 인연들만 생기고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만큼 인천 또한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창간부터 지금까지 '굿모닝인천'과 함께 한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 440-8305, goodmorning.incheon.go.kr

우리 모두 승리자이자 챔피언



개막식 웰컴 세리머니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A Wave of Passion, New Begins!





A Wave of Passion, Now Begins!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Impossible(불가능)'이란 단어가 바로 I'm possible(나는 가능하다)임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인천 전역에서 열린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열정과 도전으로 장애, 한계, 불가능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감동의 드라마였다. 아시아 41개국에서 온 6천19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1975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창설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특히 북한은 이번 대회에 선수 9명 등 33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처음으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모습을 나타냈다.

선수들은 육상, 수영, 양궁 등 19개 패럴림픽 정식 종목과 배드민턴, 론볼, 볼링, 휠체어댄스스포츠 등 패럴림픽에 없는 4개 종목 등 총 23개 종목의 443개 금메달을 놓고 자웅을 겨뤘다. 그러나 그들에게 승부와 순위는 큰 의미가 없었다. 도전하는 그 자체가 자신과의 승부였으며 그들 모두 승리자이자 챔피언이었다.





A Wave of Passion, Now Begins!





어울림과 하나됨의 아시아 정신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다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다. 그들은 이제부터 다시 더 많은 도전과 극복의 드라마를 준비할 것이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폐막식 환송사에서 “승패의 결과에 상관없이 함께 뛰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평화의 모습을 봤다.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해준 선수단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글 · 사진 김민영 자유사진가



A Wave of Passion, Now Begins!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비 오는 가을 포구, 낭만 그레이

가을비가 내린다. 시간이 멈춘 듯, 빛바랜 포구. 빗물에 폭 젖은 흙빛 바다가 더욱더 진하고 깊은 빛을 발한다. 현실이 아닌 듯, 물기 가득한 공기 한가운데 스산한 기운을 잔뜩 안고 서 있는 공장지대는 북성포구 만의 정서를 극대화시킨다. 햇빛 뽀뽀한 날이라면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할 게 분명하다. 하지만 하늘도 바다도 땅도 온통 잿빛, 비 오는 가을 한가운데 북성포구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바다

지독했던 여름의 열기가 사그라지고 가을이 스며들었다. 요 며칠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니 오늘따라 빗줄기가 점점 굵어진다. 살갗에 닿는 공기의 촉감이 흠칫 놀랄 만큼 차다. 흘러가는 자연은 한순간 놓치면 이내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만다. 이 가을이 가기 전에 갯골 따라 밀려오는 바닷바람 따라 길을 나선다. 그곳에 바다가 있으리라, 인천사람이라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월미도 가는 방향 만석고가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좁다란 골목길에 다다른다. 그 길을 따라 대한제분 인천공장 입구에 들어서면 ‘북성포구’를 알리는 낡은 안내판이 눈에 들어온다. 진입로가 황량해 실망스럽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풍경이 펼쳐진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북성포구 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은 그 강도를 더한다. 더 거칠고 더 투박하고 날것 그대로 더 생명력 넘친다.



수상가옥 같은, 포구의 횃집



비 오는 창밖 너머, 포구

포구 가는 길, 거친 제 속살을 감춘 갯골 위로 흠뻑 물결이 넘실거린다. 그 바다 건너편 거대한 공장지대는 실 새 없이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하늘 높이 원목을 쌓아올린다. 이 땅에 몰아닥친 산업화와 현대화의 거센 물결과 그 앞에 내몰린 포구, 그 곁을 묵묵히 지켜온 바다가 하나의 캔버스 위에 묘하게 어우러진다. 그 어느 바다가 이러한 풍경을 연출한단 말인가. 북성포구는 단순히 기억의 후미진 저편에 자리 잡은 옛 포구가 아니다.

물기 가득한 포구, 밀려드는 짠 내

비릿한 바다 냄새가 훅 끼친다. 포구에 다다른 것이다. 물기 가득 머금은 포구는 바다의 강한 생명력을 더욱더 도드라지게 한다. 비에 젖은 차가운 가을바다를 헤치고 배들이 하나둘 육지의 품으로 들어온다. 물때를 어떻게 알았는지, 쏟아지는 비를 뚫고 사람들도 모여든다. 닻을 내린 서너 척의 배가 순식간에 작은 어시장으로 변한다. 평소 같으면 싱싱한 날것들이 쏟아져 나왔겠지만, 곳은 날씨에 물고기도 바다 깊이 숨어버렸다. 새우, 꼴뚜기, 그리고 이름 모를 잡어 조금이 갑판 위에서 힘겹게 헐떡거리고 있다. “때를 잘못 왔어. 이런 날에는 배 서너 척도 들어올까 말까인데..., 주말에 와. 물때 잘 맞으면 만선도 볼 수 있어.” 이제 막 장사를 마친 김순내(58) 아주머니가 날씨 때문에 오늘은 별 재미를 못 보았다며, 물에 젖은 꼬깃꼬깃한 지폐 뭉치를 펴고 돈을 센다. 북성포구 일대는 6·25 전쟁 때 북에서 온 실향민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형성됐다. 잠시 머물다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세월은 흘러 흘러 60여 년이 지났다. 그네들의 땀방울로 일군 북성포구는 80년대까지 만해도 가까이 화수부두, 만석부두와 함께 만선의 기쁨으로 출렁거렸다. 과거의 영광은 추억 저편으로 사라졌지만, 포구는 여전히 살아 숨 쉰다.



밤 한가운데 성(城)처럼 떠오른 공장지대

삶이 흐르는 바다, 그리고 위안

포구 안으로 들어가면 작은 횃집 대여섯 군데가 미로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다. 뺨대를 드러내고 바다 위에 부유하듯 떠 있는 가게들이 마치 수상가옥 같다. 횃집이라기보다 선술집 같은 분위기도 풍긴다. 그 안에는 여전히 바다에 기대어 살아 가는 사람들이 있다. ‘미소 횃집’의 김봉애(63) 할머니는 9살 때 6·25 전쟁을 피해 이곳으로 왔다. 이후 줄곧 바다 곁을 떠난 적이 없으니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할머니는 30여 년 전에 가게 문을 열어 지금껏 한자리를 지키고 있다. “처음에는 우리 가게를 포함해 두 곳이 있었어. 전기도 수도도 안 들어오는 길바닥에서 버려진 타이어를 놓고 장사했으니 가게라고 할 수도 없었지.”, “9살이면 내려오느라 힘들었겠어. 똥마당에는 뒹하러 왔어.” 옆에서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어르신이 한마디 거든다. ‘똥마당’. 한때 북성포구 일대를 부르던 말이다. 그 옛날 인근 미군부대에서 똥을 내다버려서라고도 하고, 근처 피난민 동네의 화장실 역할을 해서 붙여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설마 바다에 똥을 버렸겠냐며, 근처 ‘하꼬방’에 살던 피난민 아이들이 골목에 하도 똥을 싸 놓아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설을 바꾸어 버린다.



지금 횃집 앞에는 오가는 발걸음들이 오늘 잡은 싱싱한 날것을 고르느라 바쁘다. 한창때 만은 못해도, 포구의 짠 내를 잊지 못해 찾는 단골들은 여전하다. 바다에 마음을 꺼내 두고 회 한 점 술 한잔으로 시름을 달래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 여기 흐른다.

포구는 살아 있다

날이 차츰 검기울더니, 해가 노을을 흘릴 새도 없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만다. 공장지대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아직 잠들 줄 모른다. 밤이 깊어 갈수록 바다와 하나로 스르르 어우러지는 빛깔. 고요함이 밀물처럼 밀어닥친다. 긴 세월 이 땅에 휘몰아친 산업화와 현대화의 거센 물결을 바다는 묵묵히 지켜보고 견뎌내었다. 그 바다 끄트머리에 있는 나이 든 포구는 쇠락했지만 생명력은 여전하다. 바다 속에서 은빛 희망을 낚고 한잔 술에 시름을 달래며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안에 머문다. 포구는 아직, 살아 있다.



북성포구, 만석부두, 화수부두는 모두 한 바다다. 6·25 전쟁 이후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모여 짠 내 나는 삶의 터전을 일구었다. 이들 부두는 인천을 대표하는 3대 어항으로, 한때 연평도 조기가 쏟아져 들어오던 호시절을 누리기도 했다. 1970년대 후반 인천항을 개발하고 대규모 공장지대가 들어서면서 규모가 쪼그라들었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옛 포구에 남아 바다를 지키고 있다.



노을빛에 내린 녹슨 닻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깊은 가을, 예술영화가 나를 깨운다

가을바람에 찬란히 부서지는 따듯한 햇살, 눈이 시릴 정도로 시원하게 펼쳐진 파란 하늘. 가을은 오감이 호강하는 계절이다. 잠깐만 시간을 내어 야외로 나가 들길, 숲길을 걸으면 자연의 향기와 숨결이 모든 감각을 자극한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이 소중한 계절을 좋은 영화, 예술영화와 함께 한다면 즐거움은 배가 된다. 예술영화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안게 되는 고뇌, 사랑, 슬픔 등은 물론 부조리한 인간의 모습을 영상예술로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삶을 반추하게 한다. 예술영화 한 편에서 인생이 그대로 묻어나온다. 깊어가는 가을,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예술영화공간들을 소개한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유창호 자유사진가



1년 내내 예술영화가 흐른다 **동검도 DRFA 365예술극장**

1년 365일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섬이 있다. 강화 동검도를 찾으면 'DRFA(Digital Remastering Film Archive)365 예술극장'이라는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일반극장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 예술영화를 1년 내내 볼 수 있어 마니아층은 물론 일반인들의 입소문을 빠르게 타고 있다. 꼭 예술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깊어가는 가을의 내음을 한껏 마시고 느낄 수 있는 나들이 장소로도 제격이다. 지난 10월 14일 동검도 DRFA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유명 음악가 요한슈트라우스의 생애를 다룬 영화 '그레이트 왈츠(Great Waltz)'를 상영했다. 19세기 중반 비엔나를 배경으로 당시 음악으로 치부도 받지 못하던 왈츠라는 장르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화려하고 놀라운 무대세트로 재현한 작품이다. 예술극장의 대표 유상욱 감독(50)은 "이 작품이 7번이나 리메이크되었지만 1938년도에 만들어진 오늘 상영작이 예술성과 작품성이 가장 좋다."고 극찬한다. 그는 또 19세기 중반의 왈츠는 지금의 '힙합'같은 존재로 대중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장르였다고 소개한다. 유 감독은 영화 상영 전 영화에 대한 배경 설명은 물론 주제곡을 피아노로 선사하고 있어 관객들을 영화속에 폭 녹아들게 한다.

극장은 작년 11월 15일 오픈했다. 동검도는 바닷가와 주변 풍광이 좋아 예술극장 설립의 최적지가 됐다. 유상욱 감독은 희귀, 예술영화를 감상하는 동호인 모임을 1999년부터 이끌어 왔다. 동호인만도 3천명이나 된다. 두 달마다 영화감상 모임을 가졌는데 전용극장이 없어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동호인들의 투자를 받아 극장을 건립했다.

극장은 2층 구조다. 내부는 최고급 커피를 내리는 곳과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과 좌석, 35석 규모의 좌석을 갖춘 극장으로 꾸며져 있다. 극장은 아트갤러리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곳곳에 한 때 영화계에서 이름을 날렸던 유명 감독들과 배우들의 흑백사진과 영화 포스터들이 붙어있어 색다른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극장은 전 세계의 고전, 예술, 작가주의 영화를 찾아서 복원하는데 힘써왔고 이 장르의 대표작인 ‘날이 새면 언제나’, ‘안개낀 밤의 데이트’, ‘아가씨 손길을 부드럽게’ 등 주옥같은 영화들을 발굴, 디지털로 복원해 소개해왔다. 이들 영화는 영화음악으로 유명하지만 영화로는 볼 수 없었던 명작들이다. 올 추석에 상영했던 1959년도 작품인 이탈리아 영화 ‘물망초’는 매진행렬을 이루기도 했다.

영화는 12시 30분, 15시, 18시 3번 진행된다. 월요일과 화요일의 경우 18시 영화는 예약이 있을 때만 상영한다. 12시 30분 영화는 관객이 요청하는 리퀘스트(Request)영화를 상영할 땐 커피값 포함 1만원을 내고, 극장 자체 프로그램일 때는 찾값에 2천원만 추가한다. 금요일과 토요일엔 21시에 심야영화를 상영한다. 주말 심야영화는 19금의 성인영화로 작품성을 갖춘 제3세계 영화들로 구성한다.

극장은 11월 개관 1년을 맞아 특별작을 준비하고 있다. 톨스토이의 원작 소설을 독일에서 영화화한 ‘부활’이다. 영화 부활에서 김추자의 노래 ‘카츄사’가 나왔다.

동검도 예술극장 DRFA에서는 영화 상영전 관람객들에게 강화와 동검도의 역사, 문화 이야기를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다. 영상은 유감독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했다. 영상엔 동검도이야기, 자연, 강화읍 천주교성당, 철종의 역사가 담겨있는 용흥궁 등을 담았다.

의정부에서 왔다는 최보경씨는 “현재까지 다섯번 극장에 왔는데 영화를 보고난 후 갯벌과 갈대가 춤추는 자연을 보노라면 도시에서 지친 마음과 몸이 힘을 얻는 듯하다”며 이곳에 자주 오는 이유를 밝혔다. 문의 : 070-7784-7557



다양한 영화를 보다 **영화공간 주안**

최근 음악영화 ‘비긴 어게인(Begin Again)’의 흥행으로 ‘다양성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천시내에서 상업영화가 아닌 다양성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영화공간 주안’을 꼽을 수 있다. 영화공간 주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예술영화 상영관이다. 2007년 4월 설립되어 독특하고 재미있는 국내외 최신 예술영화, 소중한 한국독립영화, 감동적인 다큐멘터리영화를 상영하고 있어 예술영화 마니아들의 발길이 잦다. 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정한 예술영화전용관으로 8년째 지원금을 받고 있다.

영화는 1년간 219회 상영하며 한국영화 73회, 독립영화를 50일간 의무 상영하고 있다. 작품은 예술성을 갖춘 제3세계 영화, 작가주의 영화 위주로 선정한다. 10월에는 작가주의 감독으로 명성이 높은 켄 로치의 ‘지미스 홀’, 장이모 감독과 궁리 주연의 ‘5일 마중’, 무비 폴라쥬 영화 ‘초콜렛도넛’, 탕웨이 주연 ‘황금시대’ 등을 상영한다. 모두 작품성과 예술성에서 인정받은 영화들이다.

영화공간 주안은 예술영화 상영관 답게 배우와 감독과의 만남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그간 작가주의를 표방한 대표적인 감독인 홍상수, 김기덕 등 유명감독이 관객과의 만남을 가졌다.

영화공간 주안은 시민들에게 영화를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네마테크는 일반영화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실험영화, 단편영화, 작은영화를 재조명하는 시간이다. 매월 둘째 토요일에 진행한다. 사이코시네마는 한 달에 한 작품을 선정하여 정신분석과 영화정치학의 깊이와 의미를 나누어 관객들의 호응이 높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열린다. 예술영화를 좋아하는 마니아층인 20~30대 여성들이 주 고객층이다. 문의 : 867-9168





실버전용관 타이틀로 재개관 **추억의 미림극장**

미림극장에서 보고 싶은 영화, 좋은 영화를 보기 위해 몇 시간 씩 줄을 서서 표를 사던 낭만적인 시절이 있었다. 이 극장 때문에 주변 식당, 가게, 커피숍이 문전성시를 이루던 호시절이었다. 미림극장은 1957년 동구 송현동에 천막극장을 세워 무성영화 상영을 시작하면서 문을 열었다. 당시만 해도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극장은 1960년대 영화 붐을 타고 인천의 대표극장 중 하나가 됐고,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과 가까워 서울관객도 드물지 않았다.

영화 ‘싱글즈’의 권철인 감독, ‘우리생애최고의 순간’의 임순례 감독 등이 어릴적 영화인의 꿈을 키웠던 곳이다. 하지만 1999년부터 대형 복합상영관이 등장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자 단관 극장들이 문을 닫았고 미림도 2004년 영화 ‘투가이즈’를 끝으로 폐관했다.



부평지하상가 내에 있는 극장판은 독립, 단편영화만을 상영하는 공간이다. 지난 7월 5일 오픈했다. 매달 3편의 영화를 하루 8번 상영한다. 독립, 단편영화이다 보니 영화상영 시간이 길지는 않다. 한편 당 30분 이내. 영화선정은 주로 독립, 단편영화 중 극장의 콘셉트와 맞고 분위기와 느낌이 좋은 영화다. 관람료는 1편은 2천원, 2편 3천원, 3편은 4천원이다. 영화는 시간 구매 없이 아무 때나 와도 볼 수 있다. 매주 목요일은 쉼다.
문의 : 070-7378-9039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던 미림극장이 리모델링을 거쳐 추억의 예술극장으로 작년에 다시 문을 열었다. 9년 만에 재개관이다. 실버전용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어르신들을 위한 추억의 영화, 고전예술 영화를 상영한다. ‘닥터지바고’, ‘남과여’, ‘하이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정’ 등의 외화부터 ‘자유부인’, ‘맹진사댁 경사’, ‘내가버린남자’ 등의 방화까지 어르신들을 추억의 공간으로 이끌고 있다. 영화 선정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명화들로 구성하고 국내영화 30%, 외화 70%로 상영하고 있다.

상영작은 일주일마다 바뀌며 관람료는 55세 이상 어르신은 2천원. 동반자가 같이 올 경우 모두 같은 관람료를 적용한다. 극장은 관객들이 영화를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좌석을 앞뒤로 엇갈리게 배치했다. 어르신들은 젊은 날에 감동을 받고, 재미있게 봤던 영화들을 다시 보며 옛날 기억을 떠올리곤 한다고 말한다. 극장은 올해 4월 노인특화 서비스와 노인복지 활동을 하는 기업 부문의 예비 사회적 기업에 선정됐다.

문의 : 764-8880



스크린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가을이 무르익었다. 적당한 햇살 적당한 바람, 모든 것이 모자람과 지나침이 없이 알맞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는 잠들어 있던 감수성도 살며시 눈을 뜬다. 굳이 길을 떠나야만 흘러가는 계절을 쫓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가을처럼 깊고 풍부한 영화 한 편으로, 이 계절을 한껏 끌어안는 사람들을 만났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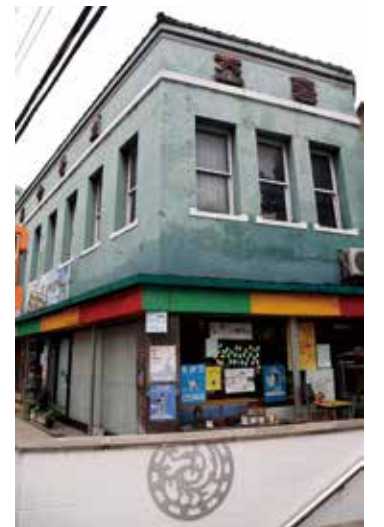
옛 것이 주는 편안함 ‘배다리 안내소 꼬꼬마 극장’

세월의 곱절이 자욱이 쌓인 현책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옛 인천양조장, 오래된 의상실과 문구점... 배다리는 우리가 간직해야 할 풍경을 붙잡고 있는 고마운 동네다. 그 마을 입구에 ‘배다리 안내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군데군데 파란색 페인트칠이 벗겨진 외벽에 ‘조흥’이라고 커다랗게 쓰인 두 글자, 건물부터 예사롭지 않다. 환경운동가 권은숙(45)씨는 한옥과 일본식이 혼합된 1940년대 건물을 생활문화공간 ‘달이네’로 개조해 세상 앞에 내놓았다. 그 안에서 속수무책으로 썩어가던 쓰레기더미 조차 그의 볼 줄 아는 눈과 따뜻한 손길로 묵은 먼지를 털고 새 생명을 얻었다. 오래된 사진, 묵직한 전화번호부, 낡은 나무 책상... 손때 묻은 물건 안에 담긴 누군가의 사연이 아련히 밀려오는 듯하다.

달이네는 1층 안내소를 비롯해 게스트 하우스, 생활 전시관, 뜨개 공방, 책 쉼터, 동네 영화관 등 그 작은 공간에서 참 다양한 역할을 한다. 1층 안내소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두 시에 ‘꼬꼬마 극장’이 열린다. 배다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매주 대여섯 명이 모여 영화를 보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비 오는 시월의 셋째 주 상영작은 ‘마이 시스터 키퍼(My Sister’s Keeper)’. 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를 다룬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다.

‘느릿느릿, 천천히 둘러보세요. 맘껏 즐기세요.’ 오래된 것들이 풍기는 편안함이 있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지나 다다른 빛바랜 동네 입구의 작은 쉼터. 그 안에서는 그저 책 한 권 읽고 영화 한 편을 보아도 충분히 행복하다.



언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꼬꼬마 극장 상영일)
어디서 배다리 입구에 있는 달이네 1층, 배다리 안내소
무엇을 영화 감상, 생활사 전시관 관람, 뜨개질 수업, 중고물품 및 재활용품, 유기농 먹거리의 윤리적 소비, 잠시 쉬어가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어떻게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문의 청산별곡 010-9007-3427, 달이네 카페(cafe, naver.com/tulmoonh)



관객을 넘어 감독으로 ‘하품학교’

피곤하고 지칠 때, 기지개를 켜고 하품 한번하면 몸과 마음이 개운해진다. 좋은 영화를 보며 좋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도 그러하다. 2004년 남구 학산문화원에서 시작한 시민 영화감상 동아리 ‘하품학교’는 하품을 하듯 나른한 일상을 깨운다.

하품학교에서는 영화를 본 후 영화 전문가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회원들 스스로 영화 해설과 상영 프로그램 운영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상영작의 테마는 아이들과 여성의 인권, 가족간에 사랑 등 보는 이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움직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이다. 올해의 테마는 ‘Only One(우리과 우리 마을, 우리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자폐증이 있는 여인의 실화를 다룬 ‘템플 그랜딘(Temple Grandin)’, ‘타인의 삶’,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등의 작품을 선보여 호응을 이끌었다.

하품학교는 특히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을 넘어, 함께한 시간을 필름 속에 녹여 영화제로 활짝 꽃피운다. 회원들이 함께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를 세상에 선보이는 ‘하품영화제’는, 어느덧 11회를 맞으며 작지만 의미 있는 마을 축제로 자리 잡았다. 하품학교 사람들에게 영화란 단순히 ‘보는’ 예술이 아닌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삶 그 자체다. 삶을 영화처럼 영화를 삶처럼, 그들은 지금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인생의 필름을 돌리고 있다.



언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어디서 영화공간 주안 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4관)과 컬러팩토리관
무엇을 영화 감상, 비평, 제작에 이르기까지 영화에 대한 모든 것
어떻게 남구 학산문화원에서 신청하며 가입비는 무료. 일반회원은 영화 관람 및 토론에 참여, 하품지기 동아리 회원은 상영작 선정, 영상제작 교육 및 영화 제작 과정 등에 참여 가능
문의 남구 학산문화원 866-3993~4(hapum.haksansodam.com)



영화 같은 일상이 여기에 ‘힐링무비톡’

“영화는 하나의 여행입니다. 스크린으로 들어가 삶의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살아갈 힘을 얻으니, 영화야말로 최고의 힐링이 아닐까요?”

우리는 영화를 보며 잊고 있던 나를 찾고 타인의 삶을 이해하며 때론 살아 갈 에너지를 얻는다. 영화감상 동아리 ‘힐링무비톡(Talk)’의 운영을 맡고 있는 신동명씨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이 모임은 작년 ‘부평 문화사랑방’에서 주최한 영화 프로그램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대부터 50대까지 폭 넓은 연령 대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회원들은 영화를 중심으로 세대와 상황을 뛰어 넘고 마음과 마음을 잇는다. 각기 다른 시각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만큼 상영작도 장르와 시공간을 넘나든다. 올해의 테마는 ‘세계 영화 여행’으로 바다 건너까지 시야를 넓혔다.

모임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 “우리는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부담 없는 ‘수다 모임’이에요.” 회원들은 함께 영화를 본 후, 거창하게 작품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고 느낀 바에 대해 편안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다. 영화가 싹 틔운 이야기는 어느 새 어린 시절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그 후에는 함께 영상 속에 나오는 음식을 먹어 보고, 촬영한 장소를 찾아 추억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영화 안에서 잊고 있던 추억을 찾아 새로운 추억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다.

언제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오후 7시 20분,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어디서 부평 문화사랑방
무엇을 영화 감상과 자유로운 수다
어떻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임에 참여 가능, 회비를 내고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더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힐링무비톡(healtalk.blog.me), 신동명 010-6354-4279



시민의 행복

미래 먹거리

인천의 비전 담다

지난 7월 민선 제6기의 출발과 함께 인천은 새로운 도약대에 서 있다. 그간 인천은 대외적으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세계에 인천의 가치를 알렸다. 또 내부적으로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실현하고자 인천의 공간을 꼼꼼히 챙기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등 내실을 다져왔다. 이제 인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꿈꾸며, 시민중심의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해 인천의 비전을 실현한다. 새로운 인천을 만들고 풍요로운 내일을 열어 갈 핵심 10대 과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미래 예측, 미래 창조하는 길

‘비전 2050’ 미래발전 계획

인천시는 민선6기 비전인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실현하고자 ‘비전 2050’ 미래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세계미래학회 회장 짐 데이토(Jim Dator)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작업’으로 규정한 바 있다. 오늘을 건너 희망한 내일을 열기 위해선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미래예측에서 제시된 가능성에 따라 인천미래 전략을 수립, 이를 위해 인천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선점한다.

‘비전 2050’ 미래발전 계획은 인구구조, 경제성장, 산업구조, 국제질서, 통일여건 등 내·외적 환경변화와 미래예측을 바탕으로, 도시계획·교통·사회·경제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에 근간이 되는 최상위의 종합적 발전 전략이다. 시는 장기발전 전략에 기반해 중기계획과 액션 플랜을 수립한다.

명품 쇼핑타운 조성

‘요우커 마케팅’으로 미래클 경제 실현

세계 관광의 큰손으로 떠오른 ‘요우커’들을 인천으로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마케팅이 이뤄진다. ‘요우커’들의 관광 취향에 맞춰 저가·알뜰 관광에서 고품질, 품격 관광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요우커’ 유치를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는 중국 언론, 여행사, 국내 중국인 ‘팸투어’, 관광 프로그램 등과 제휴하고 중국 최대 지역정보 플랫폼 ‘따종디엔핑’에 인천 브랜드를 홍보, 인천에 대한 호감도를 높인다. 또 중국의 3대 IT기업인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를 유치하고 중국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추진한다. 요우커를 타깃팅한 관광인프라도 구축한다. 인천에도 요우커들이 좋아하고 즐겨찾는 명동, 남대문, 동대문 시장같은 쇼핑타운을 육성하고, 이들을 위한 명품상가, 대형식당, 복합리조트 등을 조성해 매력적인 관광포인트를 만들 계획이다.

튼튼한 곳간 살림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

인천은 살림살이를 건강하게 회복시키지 않고서는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재정개혁 3대 원칙으로 ▽건전성 회복 ▽재정의 기강확립 ▽지출 효율화 등을 기반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용되던 선심성, 행사성 지출과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개혁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한다.

재정개혁 방식은 34개 분야에서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대안마련 및 제도개선 토론회, 시민,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공청회를 열어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한다. 인천시 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장기적으로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을 꾀하고 단기적으로는 임대사업 추진 등 현금 유동성 확보를 추진한다.



인천의 미래 먹거리 개발

‘8대 전략산업’ 집중 육성

인천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인천을 먹여 살릴 먹거리로 ‘8대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8대 전략 산업은 인천과 지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친근한 관련 산업들이다. 8대 전략산업으로는 △항공(항공정비) △자동차부품(송도 중심 산·학·연 기술지원), △로봇(로봇산업의 메카로 육성, 로봇산업집중단지 조성) △바이오(세계 바이오산업의 전초기지, 바이오 융합산업 집중 육성), △관광(관광공사 설립, 각종 서비스산업의 관광화) △뷰티(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화, 바이오산업과 연계 화장품 개발), △서비스(개별서비스의 체계적 연계를 통한 융복합화 추진) △해양(송도 등 마리나 기지 개발, 주변 섬지역을 해양관광지화) 등이다. 전략산업 육성에 따라 해당 분야 주력 기업의 유치 방안도 추진한다.

인천에 오는 기업에 인센티브

IFEZ 규제완화 시범지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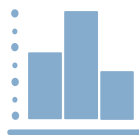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전 국토 0.1% 규모지만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규제완화 실험의 최적지다. 이곳에 외국기업의 투자를 이끌고, 국내 기업들이 인천으로 올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내 다양한 규제 완화 시범지구를 추진한다. 의료, 교육 등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해 획기적으로 규제완화를 하고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외국 투자기업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들이 인천으로 이전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만든 성공모델은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천 정신과 문화의 원형

지속가능한 원도심 성장동력 창출

인천의 문화와 정신이 내재된 원도심. 원도심은 신도시에 밀려 정책이나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고 이에 원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컸다. 이제 원도심은 버려진 동네, 사람들이 떠나는 지역이 아닌 인천의 문화, 관광, 역사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새로운 동력을 얻는다. 인천시는 원도심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꿔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살리고, 지역별 특성화된 맞춤형 도시개발 전략을 마련한다. 우선 우리나라 근대화의 물꼬를 튼 개항장 주변을 재창조한다. 개항장, 내항과 역사권을 연계해 경제, 문화적 재생효과를 창출하고, 항만, 철도, 문화, 역사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원도심 개발전략도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 신속성을 확보하고 맞춤형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원주민이 정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를 꾀한다.



‘녹색’은 인천의 새 브랜드

살고싶은 녹색환경 도시 조성

2012년 인천은 GCF(세계녹색기후기금)사무국을 유치하면서 녹색과 환경을 품은 도시가 됐다. ‘녹색’은 이제 인천이 세계에 자랑할 새로운 브랜드다. GCF사무국, 세계은행(World Bank) 유치를 계기로 인천은 글로벌 녹색 산업의 메카가 되어 시민이 행복한 녹색환경 도시로 만들어간다. 인천시는 정부의 송도 서비스산업 허브화 사업과 연계, 정부 출자방식으로 송도녹색투자은행 설립을 건의하고, 월드뱅크 유치를 기반으로 GCF와 매칭투자 추진 등 GCF 2단계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생태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해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정비하고, 국가 철새연구센터 건립, 수도권매립지 친환경 경적 활용,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 개발로 시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또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청양산 휴양공원, 부평시민공원 조성 등 원도심에 녹지 공간을 확충한다. 또 무의도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인천형 녹지브랜드를 조성한다. 시민들이 쉬고 즐기는 공간을 늘려 인천을 생태친화적 도시로 디자인한다.

한국 등록유산 12번째는 ‘강화도’

강화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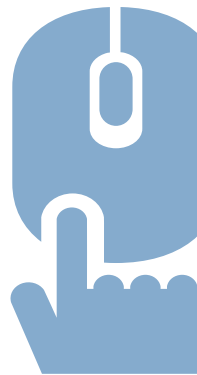
강화도는 지붕없는 박물관이다. 고려는 물론 선사시대,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보존가치가 있는 귀중한 역사유물, 유적을 다양하게 품고 있다. 강화도에 남아있는 역사문화 유산의 보전과 활용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의 등재를 추진한다. 등재 검토대상은 참성단, 천제암 궁지인 제의유적, 고려궁지, 왕릉, 사찰지 등의 고려도읍 유적, 강화산성 및 진·보·돈대 등을 포함한 조선시대 해양관방 유적이다. 등재 추진일정은 2016년 잠정목록 등재를 목표로 진행된다. 한편 우리나라 등록유산은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등 11개가 지정되어 있다.



세계의 인재 인천으로 ‘유학’

글로벌 교육도시로의 도약

인천시는 2015년 세계교육포럼 성공개최로 교육도시로서 인천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 2015 세계교육포럼은 전세계 190여 개국에서 약 1천5백 명 이상의 교육 장관급들이 참여하는 세계대회다. 내년 인천이 포럼 유치에 성공하면 ‘2015 세계 책의수도’ 사업과 연계하여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글로벌 교육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도 활성화한다. 차별을 해소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출을 돕고, 직접설립, 합작법인, 현지법인 등 국내분교 설립, 프로그램 진출을 돕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는 앞으로 세계 대학순위 50위권 내에 있는 최우수대학이나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캠퍼스는 현재 4개교에서 2018년까지 10개교 개교를 목표로 한다. 지역의 미래 인재도 육성한다.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육성하고 국제기구, 항공, 항만, 뷰티, 로봇산업 관련 마이스터고 설립에 박차를 가한다.



한 땀 한 땀 이어 온 50여 년 재단 인생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인천 최고의 테일러(양복인)가 되고 싶어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47년간 한눈팔지 않고 오직 좋은 양복만을 만들어 온 김진성(78) 도성양복점 대표는 우리나라 양복계의 명장이다. 평생을 늘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해 온 결과다.

김 대표는 황해도 용진 태생으로, 가족과 헤어진 뒤 6·25 전쟁과 5·16을 겪으며 양복기술을 익혔다. 21세때 양복점의 견습공으로 들어가 낮에는 양복일을 배우고 밤에는 야간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주정야독’하는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손재주가 좋았던 그는 남들이 퇴근한 후 어두침침한 형광등 아래서 재단하고 익히면서, 2년 만에 일류기술자로 거듭났다. 양복 잘 만드는 기술자로 이름을 날리면서 생활고를 해결했고,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대학을 졸업한 후엔 중공업회사 공채로 들어가 7년을 근무하다 가게를 열고 양복인이 됐다.

그는 양복인으로 성공하기 위해 기술은 물론 경영관련 공부를 많이 했다. 양복장인들이 기술과 디자인에만 힘쓰던 것과는 달랐다. 고객관리, 기업경영, 인간관계 등과 관련 공부를 위해 책을 놓지 않았다. 특히 고객 관리에 신경을 썼고 손님을 맞이할 때 손 자세, 말하는 방법까지 세세히 익히고 실천했다.

처음 몇 년간 고전했던 양복점은 1972년 ‘신사복기술경진대회’서 1등 수상과 양복정보, 신사복 입는 요령을 담은 ‘도성코너’라는 책을 만들어 홍보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당시로서는 흔치 않던 홍보마케팅이었다. 애관극장에서 패션쇼를 열고 도성양복점을 대중에게 알렸다. 그 결과 그의 가게엔 주문이 쇄도했고, 당시 인천에서 이름 꽤나 날리던 사람들 대부분 그의 단골이 되었다. 그는 지금도 쉬지 않고 패션 관련 책을 보면서 유행경향을 파악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사진에도 꽤 좋은 솜씨를 갖고 있다. 사진찍는 걸 좋아해 사진관련 책을 구해서 열 번, 스무 번씩 보면서 공부했다. 인천의 다양한 풍경을 찍어왔고, 인천사진작가협회 회장도 지냈다. 몇 년 전엔 그가 찍은 인천대교 밤풍경 사진을 인천문화재단에서 구매하기도 했다. 이 사진은 한밤중에 6번이나 문학산 유도탄기지를 넘어 그 만이 알고 있는 사진 포인트에 올라가 촬영한 작품이다.

그는 점점 양복을 배우려는 사람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가 갖고 있는 훌륭한 양복기술을 젊은 사람들이 잘 배워 세계로 뻗어나가고 더 나아가 해외 고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아 양복을 맞추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의 앞으로 계획은 자신의 80여 년의 인생을 담은 자서전 집필을 준비하는 것이다.



사람, 마음, 풍경을 담다...

근대문화 유산을 간직한 인천 곳곳의 모습이 소박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드러난다. 과거와 현재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우리가 자칫 무심히 지나쳤던 다양한 감성과 추억들이 가슴 가득 느껴진다.

인천 특유의 역동성과 생기가 가득한 삶의 풍경들, 그 안에 살아 숨 쉬는 억척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이 사진작가 7인의 애정어린 눈길로 되살아났다. 인천의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아낸 전시회 '사람, 마음, 풍경'展을 신세계갤러리 인천점에서 개최한다.

따뜻한 사람들을 포착하는 작가 중, 먼저 김보섭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기억의 한편에 파묻힌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사람들을 카메라 앵글에 담았다. 이제는 사라져버린 풍경들, 진통제를 먹으며 배를 타던 억척스런 뱃사람들, 고무함지를 끌며 조개 캐던 여인들, 고깃배들의 모습이 어우러진 사진을 통해 인천의 과거와 현재를 마주할 수 있다.

본지 편집장인 유동현은 인천의 골목길을 담은 작업만 10년 이상 지속해왔다. 카메라를 들고 인천 곳곳을 누비면서 개발 붐에 들떠있는 인천의 모습과 북적거림 속에서 점차 사라지는 인천의 골목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논리의 허점,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레 담았다.

이영옥은 도시의 익숙한 풍경을 찍으며 거리의 감추어진 면모를 드러낸다. 그의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전선줄, 차단망, 횡단보도 등의 선적인 이미지는 도시 지탱의 필수요소이자 도시인을 엮어매는 통제요소라는 상반성을 드러내는 메타포다.



이영옥, 이상한 도시산책, 2014



김건환, Untitled, 2013



이영옥, 이상한 도시산책, 2014

'사람, 마음, 풍경'展

일시 : 10월 23일~12월 1일

장소 : 신세계갤러리 인천점

문의 : ☎ 430-1158

이기본, 대지의 숨-바람, 2012



임기성, 기억의 저 끝, 2014



프로젝트 그룹 길, 인천9경_차이나타운, 2014

김보섭, 바다 사진관, 2006



유동현, 비와(悲瓦)_율목동, 2014



한편 인천의 자연이 지닌 생명력 자체에 주목하는 사진가로, 김건환은 풀, 나무, 어스름한 안개 등 생명의 본질적 요소들을 포착한다.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눈으로 인천의 사계를 관찰하는 작가의 투명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이기본은 아날로그적인 감성코드로 영종도, 강화도 등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흐르는 물의 움직임을 동양적인 정서로 표현한다. 자연과 인간의 합일사상, 순환론이 기저에 존재하는 철학적인 작품들은 신비로운 색감으로 표현되어 숭고미마저 느끼게 한다.

임기성 작가는 풍경을 찍지만 따뜻한 인간애를 담은 휴머니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고즈넉한 골목 풍경, 열은 빛을 내뿜는 가로등 빛에 동인천의 따뜻한 이웃 이야기가 숨어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에서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존 W-zone은 인천의 젊은 사진가 그룹인 프로젝트 그룹 길[gi:l]을 중심으로 인천9경을 담은 관객들의 스냅 사진을 전시해 다양한 추억을 공유한다.

부평 미군부대 주변에서 ‘한류’ 싹트다

음악창작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다

전후 미군부대의 주둔으로 ‘에스캄 시티(Ascom City)’라고 불렸던 그곳, 부평. 전쟁으로 인한 상처들을 미처 치유하지 못하고 날것 그대로를 곳곳에 드러내던 그 시절, 아픔을 음악으로 치유하고 달래며 무너진 삶에서 새로운 꿈을 만들어 낸 곳 역시 부평이었다.

부평 에스캄 사령부에 물자를 나르는 미군의 차량을 따라다니며 과자나 초콜릿, 껌 등을 구걸하는 꼬마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던 지독히도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희망의 노래가 끊이지 않았다.

그 시절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낸 무대가 있어 눈길을 끈다. 부평아트센터의 레퍼토리 창작 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전후 미군부대의 주둔으로 에스캄 시티라고 불렸던 부평을 배경으로 전쟁에서 부모를 잃고 큰 어머니 댁에 얹혀 지내는 주인공 용생이 구두닦이를 하며 음악에 대한 꿈을 키우는 과정에서 음악에 대한 열정과 젊은이들의 사랑 그리고 끈끈한 가족애를 보여준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류문화의 근원이 부평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외국 음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대중가요로 빚어내는 데 공을 세운 주체는, 다름 아닌 부평 미군부대에서 활약하던 뮤지션들이었다.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했고 그 희망의 울림이 현대 대중음악의 뿌리가 되어 가는 과정을 추억과 함께 엮어낸 창작음악극이다. 이를 통해 그 시절 뮤지션들이 외국 음악을 어떻게 우리의 음악으로 녹여냈는지 부평의 이야기를 새롭게 느낄 수 있다.

글 김윤경 I-View편집위원

부평은 대중음악의 뿌리

트로트가 중심이던 1950~60년대 여러 장르의 외국음악을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빚어내는 데 공을 세운 주체는 미군부대에서 활약하던 뮤지션들이었다. 특히 미국 지원사령부가 들어선 부평은 영내와 영외의 클럽에 걸쳐 다른 미8군 주둔 지역보다 많은 숫자의 밴드와 가수들이 활동했다.

임진모 음악평론가는 “미군부대에서 활약하던 뮤지션들은 대중가요의 다양화와 질적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따라서 부평은 한국 대중음악의 성장 거점이자 요지였다. 한마디로 부평이 있기에 고급스런 대중가요가 나왔던 것이다.”라며 부평이 우리 대중음악의 뿌리라고 밝혔다.

부평아트센터가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달누리극장에서 선보이는 창작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해방 이후 지금의 산곡동 현대 백화점 주변에 들어선 미 8군 보급창 ‘에스캄’ 부대를 중심으로 성행한 미군 음악클럽을 배경으로 부평의 이야기와 그 시대를 풍미한 음악을 담아냈다.

특히, 이를 토대로 우리 대중음악의 성장 거점이자 요지인 부평을 중심으로 한국 대중음악 60년의 뿌리를 찾아 음악도시 부평을 그려내며 감동의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한국 대중가요 뿌리를 찾아

찬란한 음악도시 부평의 모습을 그려낸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공연계 최고의 파트너로 손꼽히는 권호성 연출가와 김정숙 작가가 이루어내는 또 한 편의 수작이다.

김정숙 작가는 부평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휴머니즘의 보편성을 잘 아우르면서 전후의 피폐한 시대를 음악이라는 치유제로 희망을 그려내고, 권호성 연출은 따뜻한 시



부평 미군부대 주변 마을

부평아트센터 창작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일시 : 11월 1일(토)~9일(일)
평일 오후 8시 / 주말 오후 3시
장소 :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티켓 : 3만5천원
문의 : ☎ 500-2000

선으로 이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권호성 연출가는 “한류의 근원은 부평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0년대 미군들을 위한 음악과 유락시설이 부평에 있었다.”며 “팝 음악이 이곳을 통해 유입되고 우리나라 뮤지션들이 본격적으

로 음악적 기량을 쌓고 성장할 수 있었던 유서 깊은 장소”라며 작품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음악은 그 당시 살아가게 했던 원동력, 살고자 했던 힘.”이라며,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역할로 50년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한다.

작품 안에는 팝 음악과 밴드음악, 블루스 등 1950~60년대를 주름 잡았던 음악이 공연 내내 이어지면서 아련한 그 시절을 세련된 감각으로 풀어낸다. 더불어 넷 킹콜의 ‘Too young’, 엘비스 프레슬리의 ‘Hound dog’, ‘Burning love’ 더 플래터스의 ‘Only you’ 등 추억의 명곡들이 당시 음악도시 부평을 그려낸다.





김장 위해 밤낮 나오는 수돗물

6·25 전쟁이 끝난 후 상흔이 아물면서 시 행정도 급속히 안정을 찾아갔다.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시 정책과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1953년(단기 4286년)부터 1961년까지 ‘인천공보(仁川公報)’라는 주간 신문을 발행했다. 어찌 보면 본지 ‘굿모닝인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문을 보면 그 시절의 시 정책은 물론 인천의 사회상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인천공보’의 기사를 원문 그대로 발췌하되 이해하기 힘든 단어나 문장은 현재 어법에 맞게 고쳐서 매월 이 지면에 게재한다.

정리 유동현 본지편집장

난민위해 고(古) 가마니 각출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38 이북 서해안 각 도서 지구로부터 피난동포가 대거 남하하여 인천에 머무르고 있다. 그 수는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인 바 이들 난민들은 추운 동절을 당면하여 기아선상에서 방황하게 되어 구호대책이 시급을 요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난으로 수요대책이 어려움으로 부득이 임시막사 등을 마련하여야 하나 이것 역시 물자난으로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일반 원주민의 도의적인 미풍을 발휘하도록 호소하여 방한설비 자재로 헌 가마니 등을 수집하도록 시달하였다고 하는 데 일반시민은 상부상조의 미덕을 발양하여 동포구제에 유감없기를 요망하고 있다한다. (1953. 11. 25)

주야(晝夜) 나오는 수도물

지난 18일부터 시내의 수돗물은 매일 나오고 있다. 한운교 수도과장이 말한 바에 의하면 격일제로 급수하던 것을 매일 급수하는 것은 김장기의 편의를 도모한 까닭이라는 데 이 조치는 당분간 더 계속될 것이라 한다. 또한 동 과장 말에 의하면 높은 지대의 시민을 위해 야간 급수도 하고 있는데 이는 주간에는 낮은 곳 시민들이 물

을 받기 때문에 지대가 높은데 사는 시민에게는 물 차레가 못가기 때문이라 한다. 그런데 금년 김장철의 수돗물 사정은 예년에 비해 좋은 것이다. (1954. 11. 27)

배다리 철교 확장 개통

인천의 시가지 남북부를 통하는 교통선의 요충지이며 관문지대인 배다리 철교문 확장 공사가 지난 6월 3일 착공한 이래 약 5개월간의 공사를 마쳤다. 동 철문의 개통식을 겸하여 도원교 가설공사 및 육상경기장 준공식이 지난 15일 하오 2시 부슬비 내리는 배다리 철교문에서 이종림 교통부장관, 김정렬 인천시장을 비롯한 시내 각 기관장과 관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권기현 공무계장의 개최 선언으로 시작되었다. (1955. 11. 21)

유희강 씨 국전에서 또 특선

제 5회 국전(國展)이 드디어 오는 11일부터 경복궁 미술관에서 개최케 된 바 동 국전 심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인천 출신 미술인의 작품 다수가 입선되었는데 특히 유희강(박물관장 겸 시민관장)의 서예 작품인 칠언대련(七言對聯)이 특선되어 문교부장관의 상을 획득하게 되었다.

한편 이밖에도 허리복, 장인식, 박세림 씨의 서예작품이 입선되고 있는데 이번에 특선한 유희강 씨와 허, 장, 박 씨는 작년에 개최된 국전에서도 특선 및 입선을 한 바 있다. (1956. 11. 9)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인천시에서는 광견병의 예방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인천시내 전역에 걸쳐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하리라하는데 개를 기르고 있는 축주(畜主)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정 장소에 출두하여 접종하기 바란다고 한다. 이번 접종 대상은 1천72두다. (1956. 11. 16)

인천합창단 창립 연주회

결성 단계에 있는 인천합창단 창립 대연주회가 23일 하오 6시 30분 시내 신흥학교 강당에서 각계 인사 다수 참석한 가운데 홍화표 씨 지휘로 개막되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연주되었다. 끝으로 인천관현악단 반주악단의 나운영 씨 지휘로 불리워진 마지막 합창은 더욱 이채를 띠었다. (1956. 11. 23)



영화 '사랑'의 로케이션 촬영 장면. 이 사진은 수도국산달동네에서 전시(12월 31일까지) 중인 '인천의 영화광'에서 재촬영한 것임

이광수 원작 '사랑' 인천서 촬영

춘원 이광수의 원작 소설 ‘사랑’을 영화화하게 되어 이의 세트 및 로케이션 촬영이 인천에서 실시되고 있다. 감독에는 유명한 이강천 씨가 담당하고 촬영담당에는 인천 출신인 원용일 씨라고 하는데 세트 촬영은 송현동 이화창고에서, 로케이션 촬영은 율목동 소재 부림병원에서 27일부터 시작하였다. 동 영화의 주요인물은 김진규, 주승녀, 황정순, 김옥희, 고선에 씨 외 20여 명이라고 한다. (1956. 11. 23)

인천공보 신문 하단에는 주기적으로 아래와 같은 회람표가 게재되었다. 한정된 발행부수를 극복하기 위해 반원(주민)이 읽은 후 도장을 찍고 다음 집으로 넘겨 돌아가면서 읽은 것이다.





News Brief

화장품 ‘어울(Ouul)’을 기대해 주세요

인천지역 화장품 제조사가 합작해 만든 화장품 ‘어울(Ouul)’이 본격 출시됐다. 우리시는 지난 달 27일 송도파크호텔에서 인천 화장품 제조사 공동 브랜드 어울(Ouul)의 론칭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화장품 제조사, 유통업체, 여행사, 중국 수출기업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어울은 ‘함께 어우러지다, 진심을 담다’를 뜻하는 이름으로 인천 10개 화장품 제조사 24개 화장품의 공동 브랜드로 선정됐다. 시는 중국 수출을 위해 어울 전속 모델인 배우 한채아의 홍보 영상을 중국 58개 지역에 내보내고 알리바바 티몰, Qoo10 등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 현지에 휴띠고 매장을 개점할 계획도 세웠다. 시는 뷰티산업을 시의 8대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사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중구 차이나타운에 전국 최초로 지역 화장품 공동판매점 ‘휴띠크’를 개점했다. 휴띠크는 중구 문화회관 2호점, 인천항 출국장 3호점을 두고 인천 17개 업체 1천여 개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문의 : 시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440-3279



오피니언 리더 3명 ‘경제고문’ 위촉

우리시는 오피니언 리더 3명을 경제 고문으로 위촉했다. 시는 지난 달 20일 오명 동부 그룹 제조·유통 회장, 임창열 킨텍스 대표이사, 서정선 에스엘케이레저코리아 대표이사 등 3명을 시 경제고문으로 위촉했다. 과학기술 분야 고문을 맡은 오명 경제고문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 체신부·건설교통부·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고 아주대·건국대 총장, 카이스트 이사장을 지냈다. 국제경제 분야 고문을 맡은 임창열 경제고문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투자유치 분야 고문을 맡은 서정선 경제고문은 JP모건 대우증권 등에서 근무한 투자 분야 전문가다. 시는 이들이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시 정책기획관실 ☎440-2385

독일서 ‘2015 책의 수도’ 홍보

우리시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원회와 문화·교육·출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달 6일부터 11일까지 독일을 방문한 유정복 시장은 방문기간 중 위어겐 보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원장을 만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2015 세계 책의 수도인 인천은 세계 최대 도서전으로 평가받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내년 예정된 책의 수도 관련 행사의 운영 역량을 더욱 키울 수 있을 전망이다. 유 시장은 또 도서전 전시장에서 각국 교육 문화 관료와 출판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복지’를 위한 교육과 문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유 시장은 이어 페터 펠트만 프랑크푸르트 시장을 만나 두 도시 간의 문화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 ☎440-3233



독일 BMW그룹과 다시 손잡는다

우리시가 영종도에서 드라이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BMW 그룹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손을 잡았다. 지난 달 9일 독일 출장 중이었던 유정복 시장은 뮌헨 BMW 본사를 방문, ‘인천시와 BMW 상호 협력 관계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 들어설 예정인 연구개발(R&D)센터 설립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종도의 BMW R&D 센터는 브라질,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5번째다. 시와 BMW는 또 MOU 체결을 계기로 R&D센터 기능 확대와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인천 내 전기차 시범사업 추진, BMW의 국제 마케팅 행사 공동 추진 등 상호 협력관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 ☎440-3233



News Brief

인천시민의 날 기념, 알차고 검소하게

우리시는 지난 달 15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주요 인사 및 시민 등 1천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인천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인천시립무용단의 화려한 식전 공연 뒤에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제36회 시민상 10명, 모범시민 23명,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5명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상장이 수여됐다. 시는 금년 시민의 날을 기념식 위주로 알차고 검소하게 치렀으며,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천도호부대제, 월미 국화축제, 인천음악꽃축제 등 다양한 연계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유정복 시장은 기념사에서 “시정 목표인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실현하기 위해 인천만이 지닌 유·무형 가치를 창조적으로 재생산할 것.”이라며 “위대한 인천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300만 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문의 : 시 총무과 ☎440-2503



공원녹지, 2018년까지 49%로 높인다

우리시는 현재 32%에 불과한 공원·녹지 조성률을 2018년까지 49%로 높이고 시민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을 6.5㎡에서 9.0㎡까지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원·녹지 예산 비율을 올해 0.8%에서 2018년 2.5%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 시는 서구 연화공원을 비롯한 핵심공원 20곳, 계속사업 16곳 등 공원·녹지 조성에 1천900억원, 주민참여형 녹지 조성을 위한 도시녹화사업에 168억원 등 2018년까지 총 3천억원을 투자해 공원·녹지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 녹지가 부족한 원도심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려 신도시와 원도심 간 녹지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 미집행 공원 녹지를 모두 녹지화하려면 3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민간 주도형 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국가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 재정 한계를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문의 : 시 공원녹지과 ☎440-3673

윤학원 예술감독, 20년 동행에 마침표

인천시립합창단을 20년간 이끌어 온 윤학원(76) 예술감독이 지난 달 31일 퇴임했다. 연세대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한 윤 감독은 1970년 월드비전선명회합창단을 시작으로 대우합창단, 서울레이디스 싱어즈 등을 이끌었다. 2011년에는 TV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서 청춘합창단을 이끄는 멘토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또 그는 합창 콘텐츠의 한국화와 이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도 열정을 바쳤다. 1997년 벨기에에서 열린 세계합창총연합회(ICFM) 창립 15주년 기념 세계 합창제와 오스트리아 유로파 칸타타, 1999년 네덜란드에서 열린 세계 합창 심포지엄 초청연주와 유럽 순회연주, 2005년 미국 4개 도시 순회연주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우호원 전임 작곡가를 비롯한 합창 작곡가와 협업하면서 한국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메나리’, ‘8소성’ 등 한국적 합창곡을 탄생시켰다.

문의 : 인천종합예술회관 ☎420-2736



UN ESCAP 사무총장 인천 방문

삼샤드 아크타르 UN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달 20일 인천시청을 방문해 유정복 시장을 만났다. 한국의 ESCAP 정회원국 가입 60주년을 맞아 공식 방한한 아크타르 사무총장과 유정복 시장은 인천에 소재한 ESCAP 산하기구인 EACAP 동북아시아사무소와 아시아태평양정보통신교육원의 활동을 통한 인천과 ESCAP의 협력관계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UN ESCAP은 UN 경제사회이사회 소속 5개 지역경제위원회 중의 하나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사회 분야의 개발 및 협력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부는 태국 방콕에 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440-3242





News Brief



포스코 계열사 직원 5천명 송도 근무

송도국제도시 내에 포스코건설을 중심으로 포스코 계열사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포스코A&C는 지난 달 27일 송도 동북아무역센터에서 인천경제자유구청과 자사의 송도 이전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A&C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본사 직원 400여 명과 함께 본사를 내년 4월 송도로 이전하게 된다. 지난 2010년 5월 포스코건설을 선두로 포스코글로벌 R&D센터, 포스코플랜텍, 포스코엔지니어링이 잇따라 입주했다. 내년 1월과 4월 대우인터내셔널과 포스코A&C가 이전하면 6개의 포스코 '패밀리사' 직원 5천명이 송도에서 근무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포스코 패밀리사 중 매출 기준 2위 대우인터내셔널, 3위 포스코건설이 터를 잡으면서 거주·유동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증대 효과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842

승용차 선택요일제, 최대 95만원까지 절감

우리는 깨끗하고 공해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승용차 선택요일제' 홍보를 강화한다. 2012년부터 시행된 승용차 선택요일제는 운전자가 평일 중 하루를 정해 매주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승용차 선택요일제에 가입하면 자동차세(5%), 공영주차장 요금(30~50%), 교통유발부담금(30%),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신한 오일링(OilLing)카드를 발급 사용하면 자동차세 3% 추가 감면과 스마트태그 가입 부착시 자동차보험료 8.7% 할인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 유휴일에 연료 소비량을 아끼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연간 최대 95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시 교통기획과 ☎440-3863



인천항에 복합 관광단지 생긴다

인천항 송도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복합지원용지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연수구 송도동 297 일대 복합지원용지 75만9천456㎡를 '골든하버'로 이름 짓고 해양수산부 고시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골든하버에는 호텔·콘도미니엄·리조트, 복합 쇼핑몰, 워터파크, 마린센터, 컨벤션 등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사는 연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내년 1분기 실시계획 승인, 2분기 국제여객터미널과 기반 시설공사 착공 순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는 2017년에 맞춰 일부 시설의 영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의 : 인천항만공사 ☎890-8035



전국기능대회서 종합 5위 차지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달 6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제4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인천 고교생 대표단이 종합 순위 5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대 6개 경기장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18개 고교에서 학생 102명(33개 직종)이 인천 대표로 참가해 금메달 5개, 은메달 5개, 동메달 6개, 우수상 12개를 획득했다. 전국 종합성적은 작년 8위에서 3계단 상승한 5위에 올랐다. 전년보다 종합점수는 405.4점이 상승했으며, 금메달을 비롯해 모든 영역의 입상자 수가 증가했다. 한편 이번 대회 직종별 입상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직종의 산업기사 실기 시험이 면제되는 특전을 얻게 된다.

문의 : 인천시교육청 ☎423-3303



News Brief

송도 한국뉴욕주립대 기계공학과 개설

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내 한국뉴욕주립대학교가 최근 교육부로부터 기계공학과 학부 및 대학원 과정 개설에 대한 승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뉴욕주립대는 2015년 봄 기계공학과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기로 하고 현재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현재 한국뉴욕주립대는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컴퓨터 과학과 기술경영학 등 2개 학과가 개설돼 있다. 교육부 승인을 완료하고 새롭게 개설될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대학 기계공학과는 미국공학기술인증원인 ABET(www.abet.org)의 인증도 받았으며,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대학 기계 공학과 교수진이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수업한다.

문의 : 한국뉴욕주립대 ☎626-1114



가나 회계감사인, "인천에서 배우고 갑니다"

국제협력단 KOICA 초청으로 우리나라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가나공화국 세무서 직원 등 회계감사인 20명이 지난달 22일 우리시를 방문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참관했다. 우리시는 청백-e로 불리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은 모니터링과 자체점검, 공직 윤리 활동 등 3개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나 회계감사인들은 이같은 청백-e시스템의 개념과 지방세 운영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해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나 세무서 직원들은 연수기간 중 현대자동차, 삼성이노베이션, 국제청 등을 견학했다.

문의 : 시 감사관실 ☎440-3332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받기 쉬워진다

우리는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과 관련해 서류의 간소화 및 신청제한기간 단축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에 대해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것으로, 생산과 소비의 건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하는 규칙안에서는 그동안 품질인증 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도록 했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를 삭제해 인증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그동안 식품안전성 관련 검사·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품질인증 상표 사용권 또는 생산시설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품질인증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1년으로 단축했다. 이밖에 품질인증 품목의 생산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휴업·폐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30일로 연장해 편의를 도모했다. 시는 오는 11월 17일까지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문의 : 시 농축산유통과 ☎440-4374



대형마트 '코스트코' 송도에 들어선다

글로벌 초고형 마트인 코스트코가 2016년 말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연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달 28일 광명 코스트코 본사에서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프레스턴 드레이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 임용빈 게일 인터내셔널 코리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와 코스트코 코리아가 코스트코 인천점 설립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코스트코 인천점이 들어설 부지는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과 포스코건설 사옥 인근 F8블록 일부다. 대지 면적 2만2천514㎡에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3만227㎡ 규모로 지어진다. 코스트코는 2015년 11월까지 건축, 영업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끝내고 2016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842

‘교복 구매! 반값 실현, 과연 가능한가?’ 토론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최초로 ‘교복 구매! 반값 실현, 과연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교복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최용덕 교육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일선학교 교직원, 학부모 및 교복업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주관 교복구매의 올바른 정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복 구매 실태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토론하고, 교복의 학교주관 구매 시스템 정착을 위한 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는 인천시교육청 송영기 교육국장이 기조연설을 시작했고,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최길재 대표의 주제 발표와 이강호(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 이대영(인천디자인고등학교 교사), 박경래(부광여자고등학교 학부모), 송영주(전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 이사)가 교복구매의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법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운고등학교 학생모의의회 체험 활동

인천광역시의회는 참여와 토론을 통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학생모의의회를 지난 9월 30일 계양구 서운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모의의회 프로그램에는 서운고등학교 학생 33명이 참여하여 발표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 특강과 모의 상임위원회활동, 모의 본회의를 체험했다.

모의의회 처리안건으로는 ‘학생인권 조례안’과 ‘청소년이성교제 허용안’ 등 2건이었으며 ‘골목상권 붕괴 방지대책에 대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차등지원에 대하여’ 등 2건의 시정질문 시간도 가졌다. 5분 발언으로는 ‘게임 셧 다운제 완화’, ‘영어수능 절대평가’, ‘학교내 휴대폰 수거’ 등 학생들과 직접 관련된 여러 정책들에 대한 의견 표명과 교내 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발의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219회 임시회에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책사업 지원이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변경되어 매년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지방교육사업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교육위원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교육위원회는 건의문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인하여 인천의 경우 세입의 17.5% 이상을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이 25%로 확대되면 인천광역시교육청에 2015년 기준 약 4천400억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유권자연맹 인천시의회 모니터단 발대식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감사를 모니터하는 ‘청년유권자연맹 인천시의회 모니터단’이 지난 9월 26일 시의회 별관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은 1부 박승희 시의회 부의장(새누리당, 서구 4선거구)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하여, 2부에는 이도형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계양 1선거구)의 지방자치 실무와 필요성 대한 강의와 박상운 초빙강사(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지방자치 역사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고, 모니터단은 인천지역 내 학생, 주부, 직장인 등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한성민 청년유권자연맹 인천지부 운영위원장은 “멀게만 느껴지는 지방의회를 청년들이 직접 모니터함으로써 인천의 지방자치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니터단은 인천시의회 행정감사 모니터는 물론 오는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와 올바른 지방자치 활동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의정비 2018년까지 동결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2015~2018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 의정비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2008년도 이후 7년 동안 계속 동결되었으나 제7대 시의회가 최근 인천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4년 동안 다시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노경수 의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뜻에서 제7대 임기동안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위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S-oil 인천저유소, 송현동 중앙시장 등 현지 시찰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오후, 노경수 시의회 의장, 특별위원회 위원과, 지역구 시의원,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활동을 벌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화재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S-oil 인천저유소와 건물 노후에 따라 각종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송현동 중앙시장을 찾기로 위원들이 뜻을 모으면서 이뤄졌다.

먼저 방문한 S-oil 인천저유소에서는 관계자의 현황 보고를 받고, 참석한 지역 주민 대표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위원들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고경위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시는 작은 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S-oil측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문하고,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어 유일용 의원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중앙시장 방문에서는, 낙후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정비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하여 관계기관에서 방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방의회의 운영과 과정’ 발간

인천광역시의회는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직원들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례와 유권해석 등 사례 중심의 ‘지방의회의 운영과 과정’을 발간했다. 시중에 지방의회에 관한 책이 있지만 판례와 법정 다툼에 대한 다양한 사례만 모아 놓은 책은 별도로 찾아봐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 이 책의 발간으로 인천만을 위한 최신 맞춤 판례와 유권해석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 의원들의 의정 보좌를 충실히 하고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시의회 5대부터 7대까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두루 경험한 김복기 의사담당관의 오랜 의회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되고 의사담당관실 직원들의 수고로움이 더해져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크게 여섯 개로 구성된 이 책의 1편부터 4편까지는 의회를 제대로 알기 위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5편과 6편에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지방의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사례에 대한 판례와 유권해석을 실었다.



자활현장 민생투어 발대식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일 위원장실에서 위원장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 인천시 보건복지국장, 광역자활센터장,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임직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활현장 민생투어’ 발대식을 가졌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6일과 10일 2일간 지역별로 나누어 6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현장 민생투어를 직접 체험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매년 외식·간병·재활용사업단 등에서 현장 체험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계양자활의 학교 청소사업단, 연수자활의 구청내 식당의 외식·카페사업단, 남구자활의 자원재활용사업단, 부평자활의 도시농업사업단과 남동자활의 외식사업단 등에서 현장체험을 했다.

추천도서 목록			
서 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나는 누구인가	강신주 외	21세기북스	인문학 최고의 공부
천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	존 크럼볼츠, 라이언 바비노	프롬북스	20년 간 수백만의 인생을 바꾼 스탠포드대 성공 프로젝트
당신도 멘탈리스트가 될 수 있다	최현우	넥서스	Yes를 이끌어 내는 소통의 비밀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장하준	부키	지금 우리를 위한 새로운 경제학 교과서
한 번은 독해져라	김진애	다산북스	흔들리는 당신을 위한 김진애 박사의 인생 10강
바이올리니스트의 엄지	샘 킨	해나무	사랑과 전쟁과 천재성에 관한 DNA 이야기
사춘기 악마들	케빈 리먼	문학수첩리틀북	부모를 미치게 하는 사춘기 자녀 5일 변화 프로젝트
영화 읽어주는 인문학	안용태	생각의길	영화와 인문학을 접목하여 우리 주변에 얹혀 있는 불안, 아픔, 무기력 등을 풀어낸 책
공허한 십자가	히가시노 게이고	자음과모음	히가시노 게이고의 최신작이자 사형 제도의 모순과 갈등을 그린 역대 최고의 문제작!
섬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	요나스 요나손	열린책들	'참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의 저자 요나스 요나손의 신작
경성 고민상담소	전봉관	민음사	독자 상담으로 본 근대의 성과 사랑
옛 사람의 죽을 사용 설명서	조지아 브래그	신인문사	옛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을까?

자료제공 미추홀도서관 ☎440-6656

이달의 인천 향토작가



시인 윤부현
(1927~1986)

아동문학가이며 시인. 1927년 인천시 창영동 출생. 호는 훈류(薰柳). 1954년 건국대학 국문과를 졸업. 1948년 인천 축현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경희초등학교 교사 등 역임. 195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제이(第二)의 휴식'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주요작품으로 '생화', '과수원', '제2의 휴식(포플라)', '여인', '귀리 밭가에서' 등이 있고, 시집에 '꽃과 여인과 과목'(65), 동시집 '바닷가 게들'(68)이 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글 장미숙 인천광역시 경제수도추진본부 사회적경제과



인천 남동구에 소재하는 ‘(주)다함께’는 물티슈와 물수건을 제조,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회사명 다함께는 ‘지체·시각·정신 등 그 어떤 장애를 가졌다하더라도 함께하고,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다함께는 2011년에 설립해 2013년에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함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장애인단체를 후원했고, 올해는 후원 외에도 ‘사랑과 희망을 주는 다함께 노래교실’을 지원했다. 또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바 있다.

다함께의 올해 목표는 자립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자가 공장을 마련하고 6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13명의 취약계층(장애인)을 고용했고, 물티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천연 재료를 사용해 감촉을 부드럽게 하고 흡수력을 높였다.

다함께는 앞으로도 학교급식, 모든 기업체의 구내식당 외에 일반 음식점에서도 물티슈가 납품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다양화하고, 여름철 각종 광고 선전에도 물티슈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다함께의 원용관 대표는 “올해에는 우리 회사가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 흑자 경영을 이뤄 취약계층을 많이 후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천이 되었으면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천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

존 크럼볼츠, 라이언 바비노 | 프롬북스 | 2014

20년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작은 행동의 힘’ 실천방법을 수백만 명에게 전파한 미국 진로 상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저자 존 크럼볼츠와 라이언 바비노가 그들이 주창한 ‘작은 행동의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가 하는 작은 생각, 작은 행동이 쌓여 어떤 커다란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다.



공허한 십자가

히가시노 게이고 | 자음과모음 | 2014

살인과 형벌, 속죄, 사형 제도의 존속 등 결코 가법지만은 않은 주제를 다룬 이 작품은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숨 쉴 수 없을 만큼의 긴박한 전개, 자세하게 그려낸 주인공의 심정으로 책을 읽는 것에서 나아가 체험하게 해준다. 이를 통해 사형 제도와 속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수작이다.



사춘기 악마들

케빈 리먼 | 문학수첩리틀북 | 2014

심리양육 전문가인 저자 케빈 리먼이 지난 35년간 가족 상담을 진행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집대성했다. 악마로 변해버린 10대 자녀의 태도, 행동,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자녀교육법을 제시했다. 이 책은 10대 자녀와 끝없는 싸움에 시달려온 부모들에게 '5일만 바짝 신경 쓰면 당신의 아이도 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섬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

요나스 요나손 | 열린책들 | 2014

놈베코가 자신 앞에 나타나는 불행한 사건들을 헤쳐 나가며 행복을 쟁취해 가는 과정을 만나볼 수 있다. 분노통을 나르던 그녀가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고 세계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까지의 여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처럼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놈베코의 이야기.



‘인천광역시 통역비서 앱’서비스 제공

인천시는 인천을 방문하는 외국인과의 언어소통을 돕고자 ‘인천광역시 통역비서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과의 대화를 할 때 ‘인천광역시 통역비서 앱’을 적극 활용해 보자.

대상언어 :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 기간 : 8월 15일~12월 31일

서비스 내용

음성(문자) 통역 서비스(4개 국어 실시간 양방향 언어통역)

언어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 5천400백개 음성회화 수록

아시아 기타 32개 언어 : 2천개 회화문 수록(관광, 비즈니스, 쇼핑, 식사, 공항, 호텔, 교통 등 18개 분야)

문의 : 440-4045

‘인천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현재 우리의 식품산업 체계는 유전자재조합식품(GMO) 등 농식품 관련 산업 전체가 안전성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제 농산물은 유기농 농산물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가까이에서 직접



기른 과일과 채소 등을 공급받느냐가 관건이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먹는 농산물은 누가, 어떻게 생산하는지 알 수 없을까? 등이다. 이런 고민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 ‘로컬푸드 운동’이며 이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이다.

인천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은 생산자단체(영농조합, 협동조합 등)의 회원을 포함해 80여 명의 농민 및 생산자와 함께하고 있으며 생산물도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쌀을 비롯한 곡류, 감자, 고구마 등 구근류, 엽채류, 배, 포도, 토마토 등 과일, 과채류를 공동판매하고 있으며, 김, 조개, 건어물, 새우젓 등 수산물, 김치, 두부 같은 반찬류도 공급하고 있다.

문의 : 469-3500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 이전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은 쾌적하고 현대화된 업무시설과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달 6일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전 장소는 남구 주안동 195-3 농협은행 인천옹진군지부 2층(구 시민회관 인근).

문의 : 889-36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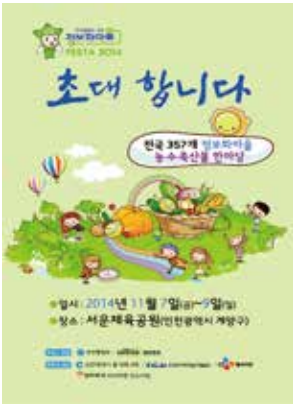
정보화마을 농·수·축산물 한마당 잔치

안전행정부 지정 정보화마을에서는 전국 357개 정보화마을을 농수축산물 한마당 잔치를 연다. 관심있는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

일시 : 11월 7일(금)~9일(일)

장소 : 서운체육공원(계양구)

문의 : 440-2322



방송통신위원회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수강생 모집

방송통신위원회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진행하는 11월, 12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수강생 모집은 개강 약 20일 전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공고한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향후 교육 일정

구분	강 의 명	일시	시간
기초 과정	'동영상 제작' 4기	오전반	12월 2일(화)~12월 11일(목) 화, 수, 목요일 10~12시
		저녁반	12월 2일(화)~12월 11일(목) 화, 수, 목요일 19~21시
		주말반	11월 29일(토)~12월 21일(일) 토, 일요일 14~16시
심화 과정	동영상 편집	12월 4일(목) ~ 12일(금)	수, 목, 금요일 19~21시
고급 과정	시민 PD	11월 12일(수) ~ 21일(금)	수, 금요일 19~21시

문의 : 722-7922, 이메일 : jsy@kca.kr

수도꼭지에 고무호스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올해 김장은 꼭 수도꼭지 직수로 사용하세요

수돗물에 녹아있는 잔류염소와 고무호스 안에 들어 있는 페놀성분이 반응하여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성분이 생성된다. 이 성분은 건강에 매우 해로우므로, 반드시 고무호스 없이 직수로 사용해야 한다.

문의 : 인천상수도사업본부 720-2200

독자가 꾸미는
하나되는
아시아



몽골 후예들의 가슴에 살아 있는, 칭기즈 칸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1시간을 달려 외곽으로 나가면 칭기즈 칸 박물관이 나옵니다. 거대한 몽골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영웅 칭기즈 칸은 몽골인들의 가슴에 아직도 살아 숨 쉽니다. 김수연 고양시 일산산 동구



중국 만리장성, 그 장대한 위용

진나라의 시황제가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만리장성. 지구에 지어진 인공구조물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한 성, 그 장대한 위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명석 남동구 담방로



가족과 함께 해 더 특별한 시간

태국과 라오스를 둘러보는 14일간의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태국 깐짜나부리 투어 중에 코끼리트레킹을 하면서 신기하면서도 즐거웠습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구창완 남동구 독곡로



미얀마의 심장, 웨다곤 파고다

미얀마의 심장, 최고의 불교 성지인 웨다곤 파고다입니다. 화려한 금빛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불탑 앞에 마음이 절로 숙연해집니다. 이가영 서울시 성북구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 그동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맞아 ‘아시아’를 주제로 독자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을 받습니다. 인천 풍경에 대한 단상, 혹은 추억이 담긴 사진을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TGIF’ 시대의 여행자를 위해서라도...

글 이영태 인천개항장연구소 대표



근간 예정인 ‘서해 5도민의 삶과 문화’를 집필하기 위해 연구소 회원들과 대청도와 연평도를 한 차례씩 다녀왔다. 대청도에서 원나라 순제 사당을 답사할 차례였다. ‘택리지’에 대청도가 원나라 순제의 유배지로 기술돼 있고 그것과 관련된 ‘신황’ 이야기가 구비 전승되고 있기에 그곳으로 향했다. 문득 원나라 순제와 관련된 드라마 ‘기황후’를 떠올리기도 했다. 그런데 작년에 답사 왔던 회원이 수풀을 헤치며 장소를 찾아봤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자료집 안에 있는 “내동 뒷산 밑에 원나라 순제를 모신 초가집의 신황당이 있었으며, 백목으로 만든 상위에 나무 촛대가 좌우로 있었고 그 중앙에는 순종황제신위(順宗皇帝神位)라는 위패가 있었다(‘동아일보’, 1928.8.25.).”는 기사를 승합차 안에서 읽으며 아쉬움을 대신했다.

연평도에서는 관광명소와 문화재에 대한 해설이 모호한 경우가 눈에 자주 띄었다. “조선 16대 인조대왕 14년(1636년) 임경업 장군에 의해 연평도에서 조기를 처음 발견한 후 해방 전후부터 1968년 전까지 황금의 조기와파시어장을 이루었다.”는 해설이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잠깐만이라도 했더라면 임경업 이전에 조기를 제수용(祭需用)과 어교(魚膠)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평도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고속정 안에서 답사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지금의 여행자들은 이른바 ‘TGIF’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TGIF’는 트위터(Twitter), 구글(Google), 아이폰(i-phone), 페이스북(Facebook)의 알파벳 첫 철자를 딴 신조어인데, ‘TGIF’를 능숙하게 운영하는 자들은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움직이는 과거의 관광

객이 아니라 여행지를 향하기 전에 많은 정보를 찾고 스스로 일정을 바꾸어가며 여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여행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TGIF’의 속성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해당 홈페이지에 원나라 순제 유배지 관련 부분은 존재하지 않고, 조기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안내표지판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행자들이 ‘TGIF’에 의해 정보를 습득하고 여행계획을 세우기에 그들을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정비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여기저기서 ‘문화콘텐츠’를 운운하고 있지만, 그것의 기저에는 제대로 된 소스(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가 자리 잡고 있다. 첫 번째 여행지는 원 소스(One source) 하나를 잃었고, 두 번째 여행지는 원 소스(One source)를 오해하고 있었다. 멀티유즈(Multi use)를 향해 언제쯤 갈 수 있을까. 여객터미널에서 빠져 나오면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삼인행 필유아사언 택기선자이종지 기불선자이개지) - ‘논어(論語)’

세 사람이 행함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 착한 자를 택하여 따르고, 착하지 못한 자를 택하여 고쳐 주어야 한다.

자기 이외의 어떤 사람에게도 본받을 만한 점이 있기 마련이다. 자신이 스승으로 삼아야 할 대상은 사회적 지위, 학력, 경력력 등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 개지(改之)가 타인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결함을 고치는 이기적 진술이라 해도 그것을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 타인이 나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와 동행할 수 없다고 예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편견이 온당한 것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구절로 이해하고 싶다.

인천 통통(通通)

인천은 ‘통통’합니다.
시민과 통하고 세상과 통합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인천시 미디어와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인천시미디어

인천시 시청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방송 ‘민트TV’(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 블로그 ‘잉크’(incheonblog.kr)

인천시미디어 블로그 ‘인천N조이’(blog.naver.com/happyou)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인천시 소셜웹(social.incheon.go.kr)

인천시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인천시 페이스북(facebook.com/flyic)